

HRI 한반도 평화지수

2010. 1

목 차

■ HRI 한반도 평화지수

I.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개요	1
II.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5
< 부록 1 > 동향 데이터 분석의 핵심 변수	13
< 부록 2 >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4

Executive Summary

□ HRI 한반도 평화지수 - 남북 관계 회복세 지속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로서, 전문가들의 주관적 분석에 기초한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통해 조사된 '정량분석지수'로 구성된다.

2009년 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조사한 결과, 남북 관계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분기에도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2009년 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41.0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3분기의 40.2에 비해 0.8포인트 상승을 나타냄으로써 남북 관계의 회복세를 이어갔다. 다음 분기의 기대지수는 50.8로 나타나 이러한 회복세는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미 후속회담 및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노력, 그리고 대북 지원 및 교역량 회복 등의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남북 관계는 객관적인 실적에 기초한 정량평가에서는 호전된 반면, 인식에 기초한 전문가평가에서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지수는 3분기 39.8에서 4분기 48.5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남북 교역과 인도적 지원 재개, 보즈워스 특사 방북과 주변국들의 6자회담 재개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인식에 기초한 전문가평가지수는 33.5를 나타냄으로써, 지난 분기 40.5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보즈워스의 방북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라는 확실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분기 북한의 유화 공세에 따른 남북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대청해전의 발발과 대북 옥수수 지원을 둘러싼 마찰 등이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남북 간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적 관계가 정치·군사적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호전되었다는 것이다. 정량분석지수의 세부지표들을 살펴보았을 때, 경제 및 사회·인도 분야를 측정한 교류지수는 3분기 31.5에서 4분기 47.7로 크게 상승한 반면, 정치·군사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 지수는 3분기의 48.4에서 4분기 49.3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4분기 남북 교역이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신종플루 치료제가 전달되는 등 경제 및 인도적 분야에서의 눈에 띄게 관계 개선이 이뤄진 반면, 정치·군사 분야에서는 북미회담 성사와 같은 호재들과 대청해전과 같은 악재들이 교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만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5대 우선정책과제는 첫째, 남북 경협을 통한 신뢰회복, 둘째, 정상회담개최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 셋째, 주변국 공조를 통한 6자회담 조속한 재개, 넷째,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 다섯째, 금강산·개성 관광의 재개로 나타났다. 특히,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을 통한 남북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다.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을 통한 남북 간 신뢰회복을 현실적으로 가장 용이하면서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1.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의 정의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
- 본 연구에서는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 HPI)라고 명명함

○ HRI 한반도 평화지수 개발 목적과 의의

- **(연구 목적)** 현재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남북 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현재 국면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특징)** 기존의 평화지수와 달리,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임
 - 설문 분석, 이벤트데이터 분석 그리고 동향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각각의 연구 방법이 가진 한계점들을 상호 보완하도록 하였음
 - 통합지수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주관적 개념의 '전문가평가지수'와 실적 통계 자료에 기초한 객관적 개념의 '정량분석지수'로 구분하였음

<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구성 및 연구 방법 >

구분	연구 방법
전문가평가지수 (주관적지수)	한반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정량분석지수 (객관적지수)	남북한 정치·군사 부문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 등의 이벤트데이터 분석과 남북한 경제와 사회문화 및 인도 부문의 동향데이터 분석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대립과 위기 상황을, 100에 가까울수록 화해·협력적인 상태를 의미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가장 위기적인 상태, 100을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
- 지수에 따른 남북 관계를 5단계로 나누어 한반도 평화의 진전 혹은 악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¹⁾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관계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화해·협력 관계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중립적 관계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관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적대적 관계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태	20이하

- 분석방법에 따라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나누어 각각 100점을 기준으로 지수를 측정하고 이들을 50 : 50의 비율로 종합하여 통합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산출함

$$\text{HRI 한반도 평화지수} = \frac{\text{전문가평가지수}(100) + \text{정량분석지수}(100)}{2}$$

1)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다른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 전문가평가지수

- **(연구방법)** 분기별로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하여 지수를 산출
 - 남북 간의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인도적 관계의 3가지 측면에서 분기별 남북 관계의 변화를 조사하여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수화
 - 5개 범주로 구성된 질문에 대한 응답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변환한 뒤 설문을 통해 설정된 각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를 산출함
- 남북 관계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수에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기대지수²⁾를 함께 산출함

○ 정량분석지수

- **(연구 방법)** 남북 관계를 크게 정치·군사 영역과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 영역으로 나누어 분기별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측정하여 지수를 산출함
 - 정치·군사 영역은 이벤트데이터 분석으로,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 영역은 동향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총 100점 만점의 지수를 산출함
- **(이벤트지수)** 남북 간에 일어난 정치·군사 관련 주요 사건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분석하여 지수를 산출하였음
 - 기존의 이벤트데이터 분석방법을 기본 모델로 하였으며, 남북 관계의 특성

2) 전문가들의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한 기대지수는 반드시 다음 분기의 한반도 평화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보다는, 다만 현 시점에서 본 단 기간 내의 남북 관계의 흐름 및 경향을 미리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에 맞게 가중치와 범주를 수정하여 적용하였음³⁾
-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을 50점을 기준으로 구분된 사건 범주에 따라 배점한 뒤 분기별로 합산하여 평균치를 산출하였음
 - 기초 데이터는 「연합뉴스」와 통일부의 「남북 관계 일지」를 바탕으로 하였음
- **(교류지수)** 남북 간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적 분야의 핵심 변수들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실제 집계된 동향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수를 산출
- 경제 영역과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핵심 변수들 14개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수치를 측정하였음 (부록1 참고)
 - 시계열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기와 이전 4분기를 포함하여 총 5분기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매분기마다 교류 수치를 표준화 (Normalization)하였음⁴⁾
 - 표준화된 값을 분기별 평균값과 비교하여 그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0에서 100점까지 배점하였음
 - 기초 데이터는 통일부 발표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과 「남북협력기금」 월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

3)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 Bank)나 WEIS(World Event Interaction Survey) 등의 기존의 이벤트 데이터 분석모델은 주로 통계적 분석을 위한 모델이므로 평화 지수 연구에 그대로 적용되기 힘든 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인 국제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 지수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의 강도에 따라 새롭게 11 단계로 분류된 사건 범주와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4) 급변하는 남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분기별로 변수들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치를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이동평균법(Simple Moving Average)을 적용하여 해당 분기와 이전 연도를 포함 총 5분기 값의 평균을 매 분기마다 다른 평균치를 산출하였으며, 이 값을 기초로 표준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2.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종합평가)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남북 관계는 지속적으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분기에도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

< 2009년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정량분석지수			전문가평가지수	
		교류지수	이벤트지수			
4분기	41.0 (+0.8)	48.5 (+8.7)	47.7 (+16.2)	49.3 (+1.2)	33.5 (-7.0)	50.8 (-3.0)
3분기	40.2	39.8	31.5	48.1	40.5	53.8

- 2009년 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결과 41.0을 나타냄으로써, 지난 분기에 비해 다소 상승세를 보였으나 변화폭이 크지 않았음
 - 3분기의 40.2와 비교할 때 0.8포인트 상승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미세하게나마 호전되었음
 - 김정일 위원장의 6자회담 복귀 발언 이후, 주변국들의 6자 회담 재개 노력과 최근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과 북미회담까지 재개되었으나, 북핵문제 해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
 - 남북 간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이산가족 상봉 및 각종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었으나, 확실한 후속 성과들이 부재
 - 따라서 남북 관계는 흐름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50포인트보다 낮은 지수를 나타냄으로써, 남북 간 긴장상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전문가들의 다음 분기 기대지수는 50.8을 나타냄으로 2010년도에 남북 관계는 상승무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현재 종합지수 41.0과 비교할 때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년 초 남북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보즈워스 방북 이후, 후속 회담 개최 및 6자 회담 전망이 밝아지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
- 남북 관계도 2010년 남북 정상회담개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음 분기 남북 관계의 긍정적인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 (특징 1) 첫 번째, 남북 관계는 객관적인 실적에 기초한 정량평가에서는 호전된 반면, 인식에 기초한 전문가평가에서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정량분석지수는 3분기에 비해 8.7포인트 상승한 48.5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분기에 비해 남북 관계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 교류지수의 경우 지난 분기 31.5에서 47.7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벤트지수 또한 48.1에서 49.3을 나타냄으로써 소폭 상승하였음
 - 이는 남북 교역이 증가세를 보였고, 정부차원의 인도적인 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군통신선 지원 및 개성 공단 임금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는 등 남북 교류가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그러나 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33.5를 나타냄으로써, 지난 분기의 40.5에 비해 크게 하락함으로써 남북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보여줌
 - 지난 분기와 비교할 때 7포인트나 하락하였으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4분기 남북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
 - 이는 보즈워스 방북이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약속이라는 기대했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데서 오는 실망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4분기 초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임진강 참사와 대청 해전의 발발, 그리고 옥수수 대북지원 과정에서의 마찰 등 악재들이 이어짐
 - 또한 남북 양측의 물밑접촉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전문가들의 4분기 남북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특징 2) 남북 간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적 관계가 정치·군사적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호전되었음

- 지난 분기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는 13.4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였으나, 4분기 들어 교류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양자 사이에 차이가 1.6포인트에 불과
- 이는 4분기 들어 남북 교역이 올해 최고치를 달성하고, 지난 분기에 비해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반면, 이벤트지수는 6자 회담을 위한 주변국의 노력과 북미회담 재개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으나, 북미 간 후속회담 재개 전망 속에서 대청 해전 등의 악재로 인해 소폭 상승하는데 그침
- 이벤트지수보다 교류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것은 4분기에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인 관계보다 경제 및 사회·인도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는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50포인트 선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전반적인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임

○ (성향별 분석)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는 현재 남북 관계를 다소 긍정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지수	HRI 평화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4분기	39.7 (-10.5)	51.4 (-6.2)	30.5 (-7.6)	54.6 (+0.2)	29.7 (-8.1)	46.8 (-4.9)	33.5 (-7.0)	50.8 (-3.0)	41.0 (+0.8)
3분기	50.2	57.6	38.1	54.4	37.8	51.7	40.5	53.8	40.2

주 : 1) 3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009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대북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함
 2) 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북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함

- 한반도 및 남북 관계 전문가 8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 분석 결과, 현재 전문가평가지수는 33.5, 기대지수는 50.8을 기록하였음

- 전문가 성향에 따른 평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보수적 성향일수록 상대적으로 남북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았고, 진보적 성향일수록 부정적으로 보았음
 -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전문가평가지수는 각각 39.7, 30.5, 29.7로, 보수 성향의 전문가는 진보 성향보다 상대적으로 남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
 - 이는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와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반면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핵문제 등과 연계된 대북 정책과 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정부의 움직임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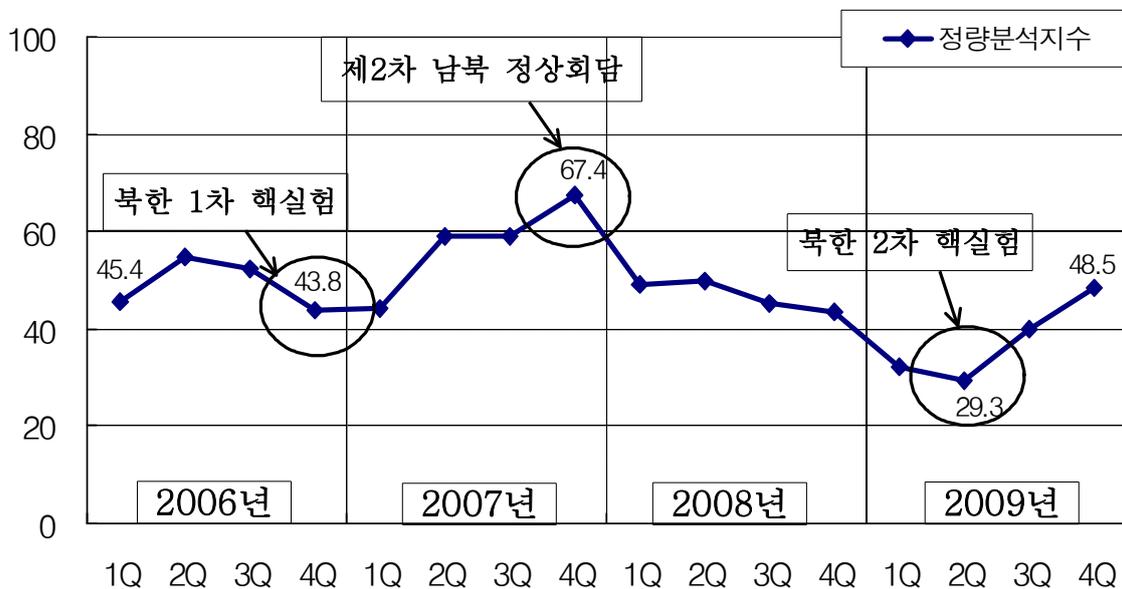
- 한편, 지난 분기와 비교할 때 보수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중도 성향이 가장 낮은 폭의 하락세를 보임
 - 이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청해전 등의 발발, 그리고 북측의 통일부와 장관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 등이 보수성향의 전문가들의 안보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자극한 것으로 판단
 - 반면, 중도적 성향의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의 부정적인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

- 기대지수는 중도 성향이 54.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진보 성향이 가장 낮은 46.8을 나타냄
 - 이는 중도 성향일수록 안보적 이슈의 영향이나 혹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만요인이 적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반면,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들의 기대지수는 46.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정량분석지수의 추이) 정량분석지수는 2009년 2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으로써, 남북 관계는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 2009년 상반기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이후 6자 회담 재개 노력과 남북 교역 회복 등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재작년 수준으로 회복
- 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48.5를 기록함으로써 2008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는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특히 지수는 2분기의 29.3에서 3분기 39.8, 4분기 48.5로 평균 지수 10포인트로 급상승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 내년 상반기 6자 회담 재개 전망과 함께 북한 핵문제가 원만히 타결될 때, 남북 관계의 회복세도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정량분석지수가 여전히 5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남북 관계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정량분석지수의 시계열 추이 (2006~2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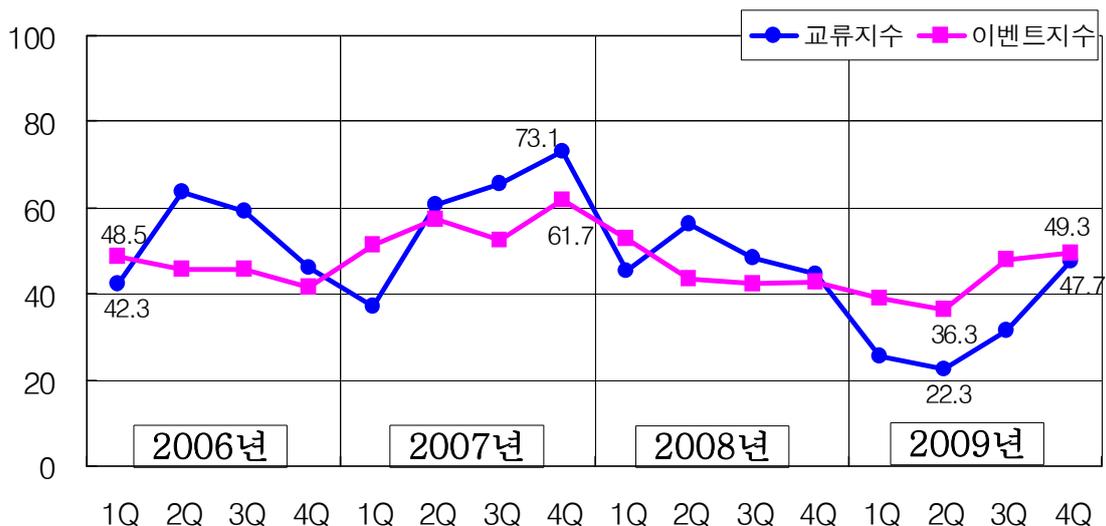


주 : 정량분석지수는 경제·사회·인도 분야의 '교류지수'와 정치·군사 분야의 '이벤트지수'의 평균값을 의미함

○ (교류 및 이벤트지수 시계열 추이) 교류지수와 이벤트지수 모두 2009년 4분기에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교류지수의 상승폭이 두드러짐

- 2009년 2분기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는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 연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냄
- 교류지수는 22.3에서 47.7로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고, 이벤트지수도 상반 기대비 10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남북 관계 회복의 기미가 뚜렷하게 나타남
- 특히, 교류지수의 빠른 증가세는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 분야에서의 남북 관계의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실제로 4분기의 남북 교역은 이미 재작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이산가족 상봉, 군통신선 지원, 개성공단 임금 협상 타결 및 각종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짐
- 정치 및 군사 분야도 대청해전과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의 악재가 있었으나 주변국들의 6자회담 재개 노력과 북미협상 재개 및 보즈워스 방북으로 인해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

< 교류지수와 이벤트지수의 시계열 추이 (2006~2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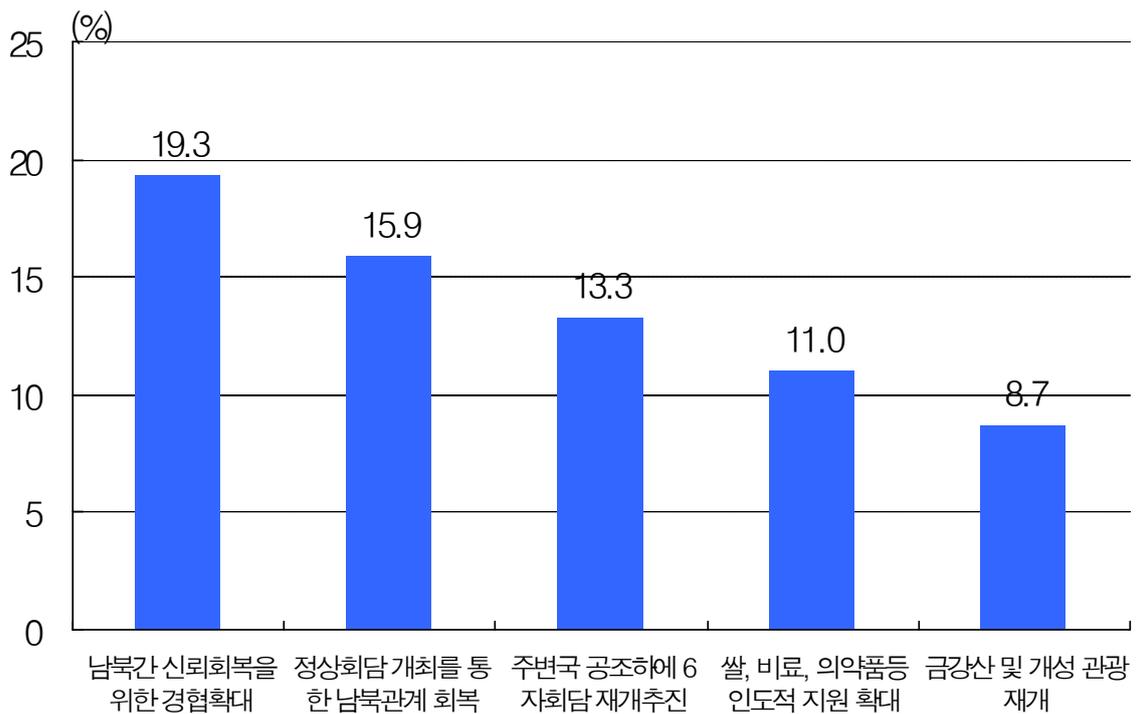
- (5대 우선정책과제)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우선과제로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한 경협 확대'를 선택
- 첫째,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경협을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지적
 -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구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 가운데 19.3%로 가장 다수를 나타냄
 - 이는 경협의 확대가 정치 군사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북 관계 회복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실용적이고도 용이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기숙사와 탁아소 건립, 근로자 출퇴근 도로 건설, 3통(통행, 통신, 통관) 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협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둘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 관계 회복이 중요
 - 지난 분기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당국 간 비밀접촉이 이뤄졌으나 정상회담이 끝내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김
 - 그러나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 간의 신뢰 관계 회복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는 급진전 될 것으로 전망
 - 셋째,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
 -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한 해결로 국제적인 여론이 조성된 만큼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함
 - 최근 새로 임명된 중국대사를 통해 한중 관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함
 - 넷째, 쌀, 비료,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
 - 올해 북한에 극심한 식량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과 비료 지원이 시급

- 지난해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사례를 볼 때,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 신뢰 회복차원에서 의약품 지원 및 의료기구 지원 확대 필요

- 다섯째, 금강산·개성 관광을 조속히 재개

- 최근 북한이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의해 온 만큼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 조속히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향후 백두산 등 북한 내 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남북 관광 협력 확대 추진함으로써 남북 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도모

<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5대 우선정책과제 >



최성근 선임연구원(3669-4405, csk01@hri.co.kr)

< 부록 1 > 동향 데이터 분석의 핵심 변수

< 동향 데이터 분석의 핵심 변수 >

구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 회 · 문 화 · 인 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주: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기금은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으로 구성

<부록 2>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목적)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전문가 평가지수 산출을 위하여 지난 3개월 및 향후 3개월의 남북관계 진단 및 전망

- 조사 시기 : 2009년 12월 14일 ~ 18일 (5日)
- 조사 대상 : 남북 관계 전문가 88명

2. 조사 내용

□ 남북 관계 분석 및 전망

○ 정치·군사 관계

(문)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5.9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2.0
3. 보통정도	21.6
4. 동의하는 편이다	19.3
5. 매우 동의한다	1.1
계	100.0

(문)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26.1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39.8
3. 보통정도	21.6
4. 동의하는 편이다	12.5
5. 매우 동의한다	0
계	100.0

(문) 북한과 주변국가와의 관계가 호전되었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6.8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30.7
3. 보통정도	22.7
4. 동의하는 편이다	31.8
5. 매우 동의한다	6.8
6. 잘 모르겠다	1.1
계	100.0

(문) 북한 내부 체제가 안정되고 있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9.1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6.6
3. 보통정도	20.5
4. 동의하는 편이다	21.6
5. 매우 동의한다	1.1
계	100.0

(문)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8.2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6.6
3. 보통정도	17.0
4. 동의하는 편이다	18.2
5. 매우 동의한다	0
계	100.0

(문)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3.4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20.5
3. 보통정도	38.6
4. 동의하는 편이다	33.0
5. 매우 동의한다	4.5
계	100.0

○ 경제적 관계

(문) 남북 경협사업의 여건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1.4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36.4
3. 보통정도	35.2
4. 동의하는 편이다	14.8
5. 매우 동의한다	2.3
계	100.0

(문) 남북 교역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3.4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18.2
3. 보통정도	27.3
4. 동의하는 편이다	35.2
5. 매우 동의한다	12.5
6. 잘 모르겠다	3.4
계	100.0

(문) 북한 경제가 점차 개방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4.8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38.6
3. 보통정도	27.3
4. 동의하는 편이다	15.9
5. 매우 동의한다	3.4
계	100.0

(문)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5.9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56.8
3. 보통정도	18.2
4. 동의하는 편이다	6.8
5. 매우 동의한다	2.3
계	100.0

(문)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3.6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6.6
3. 보통정도	31.8
4. 동의하는 편이다	6.8
5. 매우 동의한다	1.1
계	100.0

(문)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3.4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27.3
3. 보통정도	38.6
4. 동의하는 편이다	26.1
5. 매우 동의한다	4.5
계	100.0

○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문)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22.7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51.1
3. 보통정도	19.3
4. 동의하는 편이다	4.5
5. 매우 동의한다	2.3
계	100.0

(문)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1.4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4.3
3. 보통정도	34.1
4. 동의하는 편이다	9.1
5. 매우 동의한다	1.1
계	100.0

(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많아졌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7.0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30.7
3. 보통정도	30.7
4. 동의하는 편이다	20.5
5. 매우 동의한다	1.1
계	100.0

(문)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18.2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47.7
3. 보통정도	21.6
4. 동의하는 편이다	10.2
5. 매우 동의한다	2.3
계	100.0

(문)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
1.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3.4
2. 동의하지 못한 편이다	37.5
3. 보통정도	34.1
4. 동의하는 편이다	20.5
5. 매우 동의한다	4.5
계	100.0